

'패스트 라이브즈', 비평가들 선정 '2023 톱5 영화'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셸린 송이 연출하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Past Lives)가 미국 주요 매체들이 뽑은 '올해 최고 영화' 목록에 잇달아 이름을 올렸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BC 방송의 영화 비평가 피터 트래버스는 전날 게재한 '2023년 최고 영화 10편' 명단에서 '패스트 라이브즈' 를 2위로 꼽았다.

트래버스는 1위 영화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 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를 공동으로 올린 뒤 "한국의 신인 셸린 송이 이제 막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하며 가슴 아픈 로맨스 영화로 2023년 최고의 영화 대열에 합류했다." 고 썼다.

셸린 송 감독은 캐나다 국적이지만, 트래버스는 그를 "한국의 신인" (South Korean newcomer)으로 표현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주한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영화 대사 대부분이 한국어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왼쪽부터 유태오, 셸린 송, 그레타 리, 존 마카로.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2월 초 발표한 '2023 최고의 영화들' 목록에서 '패스트 라이브즈' 에 갈채를 보냈다.

2005년부터 NYT에서 글을 써온 비평가 엘리사 월킨슨은 2023년 최고 영화로 '플라워 킬링 문' 에 이어 '패스트 라이브즈' 를 2위로 꼽았다.

그는 "때때로 막 데뷔한 감독의 절제된 놀라운 작품이

연초에 나와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며 "지난해 1월 선댄스영화제에서 만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가 그런 작품이었다." 고 밝혔다.

이어 "유태오와 존 마카로의 아름다운 연기와 함께 이 영화는 운명과 우연, 사랑, 그리고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한 고찰을 담은 훌륭하고 감동적인 작품" 이라고 평했다.

'패스트 라이브즈' 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린 영화로,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호평을 받은 뒤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지난 11월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드라마상인 고섬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또 오는 7일 열리는 골든글로브상 시상식 후보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여우주연상 등 5개 부문에서 지명됐으며, 크리스마스초이스상 시상식에도 작품상과 각본상,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다.

아울러 주제곡 '조용한 눈' (Quiet Eyes)은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최근 1차로 발표한 10개 부문 후보 중 주제작 부문 예비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한소희, 안중근 사진 올리자 일본 누리꾼 '악플'

배우 한소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성 크리쳐' 에 출연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자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한소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쳐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서로서로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해 봄" 이란 글을 썼다.

지난 22일 공개되던 '경성 크리쳐' 관련 내용이다. 해당 시리즈는 일제강점기이던 1945년 봄에 두 청년이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 한소희(왼쪽)와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안중근 의사 사진. 사진=넷플릭스/SNS(한소희)

다. 일본군의 생체실험부대(731 마루타)가 주요 소재다.

시리즈에서 '윤채욱' 을 연기한 한소희는 소셜 미디어에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의 사진도 게재했다.

그러자 한소희의 팬이라고 주장한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 사람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일이나?"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 '경성 크리쳐' 를 보기엔 일본인으로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팬으로서 많이 슬퍼했다." 고 하자 한소희는 "슬프지만, 사실인 걸. 그래도 용기 내줘 고마워." 라고 소신 발언으로 답하기도 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